

2024 새해 이렇게

신우철 완도군수

'해양치유' 완도의 주력산업으로 키워 위기 극복



해양치유 데이터 플랫폼 구축 AI 서비스 제공...공단 설립도 추진 해조류 소재 해양바이오 신소재 개발로 어가 새로운 소득 창출

"해양치유산업은 완도의 미래 먹거리로 본격 육성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7일 '치유'라는 핵심어를 내걸고 완도의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한 치유 산업 추진에 열의를 드러냈다.

지난해 말 신지면 명사십리 해변 인근에는 해양치유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해양치유센터가 문을 열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양치유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내건 만큼, '완도형 해양치유산업'을 독자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기반 '해양치유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차별화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양치유산업 효과를 극대화할 기반시설로는 해양기후치유와 문화치유센터, 해양치유공원, 해

안치유의 숲 등이 있다.

완도군은 해양치유 관련 시설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인이 경영하는 공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 기구를 중심으로 해양치유 호텔과 리조트 등 방문객이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민간 투자 협약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관광·바이오산업과 연계해 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찾은 예정이다. 해양치유에 소비되는 자원은 모두 완도산으로 제공해 농어업 소득 증대와 농수축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동력으로 활용한다.

'치유'는 섬 지역인 완도의 장점을 심본 살리는 핵심어가 될 예정이다.

신 군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치유의 섬'을 완도 전역에 조성해 1000만 관광객 시대의

포문을 열겠다"며 해양·수산·산림·기후 등 자원을 기반으로 한 '해양 웰니스(웰빙+피트니스) 관광 특화 전략'을 소개했다.

완도군은 국비 3000억원 규모 국립난대수목원과 국립해양수산물관 등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수려한 경관과 예술, 문학, 역사가 어우러진 완도의 문화자원도 '치유의 섬'을 만드는 데 한몫할 예정이다.

청산도 범바위를 소재로 한 '기(氣) 치유'와 섬마다 지닌 관광자원을 특화한다.

가리포 노을길 등 해안도로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보길도 여객도를 예술섬으로 만들 계획이다.

완도의 대표 특산물인 해조류와 전복은 해양바이오산업의 중추적인 소재가 될 예정이다.

해양바이오 공동협력 연구소와 해양헬스케어 유효성 실증센터를 중심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오는 2025년에는 '해조류 활성 소재 인증 생산 시설'이 준공된다. 바이오 소재 대량 생산과 기업의 연계 지원 체계를 마련해 새로운 어가 소득을

만들어낼 예정이다.

완도군은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를 정부 사업으로 건의해 해조류 양식의 계절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량 생산의 물꼬를 틀 방침이다.

다시마, 미역, 청각, 감태 등 해조류를 소재로 한 기능성 식품·화장품·의약품 신소재 개발에 속도를 낸다.

이 밖에도 광역수도 연결과 수원지 개발을 통한 섬 지역 식수난 해결, 청년·신혼부부 월 1만원 임대주택, 장애인 생활밀착형 국민센터 건립, 전남 첫 무료 근대버스 지속 운영 등 두텁고 촘촘한 복지시책 확대를 위해 균형 방향으로 내걸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난해 전남 도민체육대회 개최 경험을 발판 삼아 전남 생활체육 대추전 등 3대 체육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지난해 뜨거운 반응을 얻은 정인 페스티벌은 '해양치유정원 페스티벌'로 확대 운영해 지역민과 관광객을 맞이하겠다"며 "제2의 장보고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뜻을 올리는 완도 발전의 호기를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남군 관계자들이 달마고도 걷기 여행객에게 제공할 완주 기념품을 들어 보이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 달마고도 완주하면 '인증 기념품' 드려요

해남군이 새해를 맞아 달마고도에 걷기 여행객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완주 기념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해남 달마고도 완주 기념품은 달마고도 17.74km를 완주한 여행객들에게 주어진다.

완주인증서와 메달, 배지 3종 세트로 구성했다. 메달은 달마고도 둘레길의 총 길이인 '17.74km'를 형상화했으며, 배지는 달마고도의 코스별 특징이 담긴 3가지 모양으로 제작됐다.

기념품은 연 1회 최초 완주 시에 지급된다. 인증 방법은 달마고도 둘레길의 인증지점인 관음암터와 문수암터, 노지랑굴, 도시랑굴, 물고리재, 너털, 미황사 종무소 등 7개 지점에서 각 지점별 QR 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달마고도는 땅끝의 명산, 달마산의 둘레를 감아도는 걷기길로, 땅끝의 아름다운 생태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기계 장비를 쓰지 않고 곡괭이와 삽, 호미를 활용해 사람의 힘으로만 만들어진 남도 명품길로 유명하다. 지난 2017년 개통해 지난 2020년부터 완주 인증제를 실시, 인증제 도입 이후 누적 완주자가 2만4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지체장애인협회 무안지회에 무안군 이동 지원 차량 전달

무안군은 지난 4일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사단법인 전남도지체장애인협회 무안군지회(회장 나익중)에 차량을 전했다고 7일 밝혔다.

전달된 차량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3년 공동모금회 차량배부사업'에 선정돼 마련됐다.

전남도지체장애인협회 무안군지회는 무안군장애인 편의증진기술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와 적정성을 검토하며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익중 지회장은 "기존 차량의 노후로 어려움을 겪던 중 차량을 후원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김선(오른쪽) 무안군수가 전남도지체장애인협회 무안군지회에 차량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영광사랑카드 매출 30억 이상 가맹점서도 사용

영광군은 올해부터 정책수당으로 지원되는 영광사랑카드를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이 넘는 점포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병원 등 지역 가맹점 40곳에서 영광사랑카드를 사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 매출 30억원이 넘어도 농·어민 공익수당 등 정책수당으로 지원되는 영광사랑카드를 쓸 수 있게 됐다.

영광군은 영광사랑카드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와 카드 결제 관련 업무 등을 협의했다.

정책수당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총 9개이다. 농·어민 공익수당, 결혼장려금, 청년취업활동수당, 신생아양육비,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대학진학 축하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환경관리센터 주변 영랑 지역 생활안정자금에 이에 해당한다.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정책수당만 있는 카드 또는 1개의 카드에 정책수당과 개인충전 금액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정책수당에서만 결제 금액이 차감된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